



초상화법으로 탐구한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강사

전영국, 조숙희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ycjun@sunchon.ac.kr

010-9910-3341

논문의 주제:

근본적인 질문: 질적 연구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좀더 일반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의식에 관한 본성에 관한 것이고 간주관성에 관한 것이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태와 주관적 경험을 그 자신(연구자)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뚜렷한 경험에 관한 본성과 관련이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컴퓨터 강사의 가르치는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향기 선생님은 10년차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강사이다. 그녀의 교직에 대한 꿈은 고등학교 시절 인문학을 좋아하여 막연하게 선생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당시, 고3 담임 선생님과 진학 상담 과정에서 교직을 이수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전산정보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녀는 교생 실습 기간에 학창 시절 선생님들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학생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왔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동생과 같은 학생들과 고민을 나누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했었다.

향기 선생님은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 임용시험을 봤고 그 벽이 높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 후에 교사가 되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강사가 되어 1~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힘들어하거나 학습에 흥미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열성을 다해 수업에 임하였다. 그러다 버릇없이 행동하고 막말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아이들과 두터운 벽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6~7년 동안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실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지 않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으로 바뀌었다. 또한 1년마다 재계약이라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고충이 심해졌다. 성과위주의 수업으로 인해 철저하게 직업적으로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녀는 ‘교직은 다른 직업에 비하여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아야 하고, 봉사가 더욱 요구 되어야 한다’라는 신념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양심에 가책을 받을 정도로 눈물을 쏟기도 하였다. 이제 그녀는 “방과 후 강사가 직업인가 아니면 봉사 희생을 하는 것인가?”라는 갈등을 겪는 10년차 방과 후 강사가 되었다.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사례연구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 연구의 목적

- 방과후 학교의 성공요인은 전문적 자질을 갖춘 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강사는 좋은 수업을 위한 자질과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인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 강사가 교직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학교에서의 생활과 수업을 하는 데 있어 가르치는 경험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되돌아 보게 한다.

II. 이론적 배경

• 방과후학교

- 개념: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 학교”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육체제임.
- 비전과 목적: 학생들이 진로·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의 제공을 통해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에 기여함.

III. 연구 방법 – 연구 참여자 선정

향기샘



10년차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강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경험과 전문성

III. 연구 방법 - 연구도구 및 내용

교직을 선택하게 된 동기

컴퓨터 강사로서 아이들을 처음 가르쳤을 때의 느낌

신임 컴퓨터 강사로서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컴퓨터 교육과정

컴퓨터 수업지도에서 강사와 학생과의 갈등



문제행동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컴퓨터 강사로서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컴퓨터 강사로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컴퓨터 강사의 직업적 갈등

컴퓨터 강사로서 내적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

컴퓨터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좋았던 경험

III. 연구 방법 – 연구의 절차

1차 면담

- 1월 30일
- 40분 (연구 목적 및 질문내용 을 간단히 소개)
- 면담시간 협의, 대화 발췌는 녹음기 사용
- 3 시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심층 면담)
- 면담 종료 후 전사

2차 면담

- 2월 15일
- 40분 (1차 면담 후 부족하거나 보충할 내용)

3차 면담

- 2월 26일
- 20분



IV. 사례연구 - 자료의 분석

맵

- 가로로 된 종이의 중심에서 시작
- 중심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이미 지나 사진을 이용(3가지 이상의 색깔)
- 전체적으로 색깔을 사용
- 중심이미지에서 주가지로 연결→ 주 가지의 끝에서부터 부가지로 연결→ 부 가지의 끝에서 세부 가지를 연결
- 구부리고 흐름 있게 가지를 만들
- 각 가지당 하나의 키워드만을 사용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사용

타임라인

- 생생한 단락을 모두 시간 축 위에 투사시켜 봄
- 여러 가지 뉘앙스를 지속시키며 새로운 측면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 또는 진전을 더 세심하게 숙고
- 연구 주제 또는 질문과 관련하여 다른 주요 측면이 있는가 살펴봄
- 마침내 그림이 나타남

고등학교 시절
인문학 · 교육학
관심
교직의 꿈

1996

- 대학입학
- 교원자격 취득
- 이 가능한 전산 정보학과 선택

1998

- 대학3학년
- 교사공부에 재미
- 진로에 관한 구체적 생각

2000

- 대학졸업
- 임용시험 도전

1997

- 대학2학년
- 교직공부시작

1999

- 대학4학년
- 교생실습
- 교사의 꿈

2001

- 취업

2003

-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 강사 시작
- 교직이수로 자신감 있는 수업
- 아이들이 가족처럼 느껴짐
- 교재선택의 어려움

2006

- 나만의 교육과정이 체계화 됨
- 아이들과의 소중한 즐거움

2007

- 수업이 익숙함
-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시간 때우는 방법으로 취급함(학원중시)

2004 ~ 2005

- 체계적 교육과정이 없어 수업방법이 익숙하지 않음
- 수업기술 부족
- 아이들과 관계형성 어려움

2008

- 버릇없고 막말하는 학생을 만남
- 아이들과 두터운 벽이 생김
- 아이들과 정이 없어 지고 가르치는 일에 회의감
- 학부모로부터 윤리적 · 도덕적 태도 강요

2009

- 화를 내면 나쁜 선생님이 됨
- 지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학생을 포기하게 됨

2012

- 자기성찰 · 자기계발
-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 다른 강사 수업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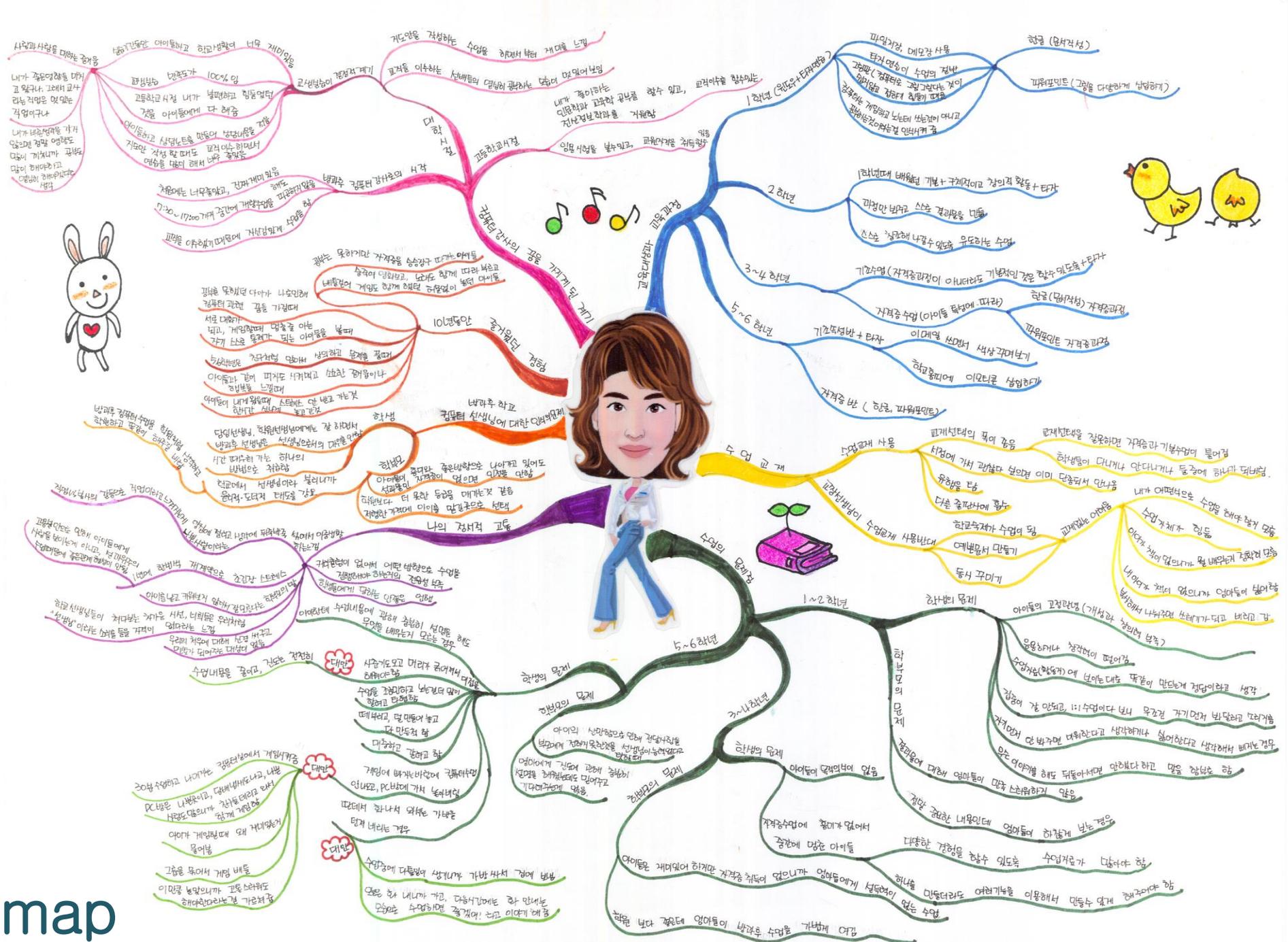
2010 ~ 2011

- 일반직업 vs 봉사회생과의 갈등
- 아이들에게 정이 떨어지고 직업이라는 생각
- 재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
- 자격증 위주의 수업

2013

- 갈등유지
- 더 가르쳐야 하는가 vs 그만두어야 하는가

Time line



사교육 시장을 더하는 관점을
 높은 수준의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의 너무 재미있음
 내가 주유영향을 더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하는 지영은 있는 것일까?
 내가 뇌를 선명하게 가져왔는데 정말 영감도 많이 가져다가 많이 해안하고
 영감의 관점에서 보면



10년동안 준비했던 경험
 평범 못지않게 더 나은 나로 인해 컴퓨터 관련 꿈을 가질때 선의 대학이 되고,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자기 스스로 통제가 되는 아이들을 볼때
 느낀대로 기다려준 영혼의 꿈과 아이들과 같이 피기도 시키려고 노력한 경험이나 경험들을 느낄때
 아이들을 키우실때 드레싱 안 하고 가는 것 하거나 선택해 줄 것

10년동안 준비했던 경험
 대학원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잘 하면서 사교육 선생님을 선생님으로서의 대우를 하는 시간 때우러 가는 하나의 배움으로 추구함
 학교에서 선생님이거나 언니와 도덕적 태도를 갖음

10년동안 준비했던 경험
 고등학교는 어떤 아이들에게 사교육 보내는게 안되고, 학업수행 능력에 따라 수준에 맞춰서 안됨
 1학년 한학기 제재용으로 초강산 스토리도
 아이들하고 개념서 없애서 잘다니는 학력이다
 아이들은 제재 보는 서전, 비취듯한 우아처럼 영아라는 느낌
 무리하게 대학 진학 시키고 대학이 되어주는 대안 없음
 수업내용을 묻고, 진도는 잘지나

10년동안 준비했던 경험
 20분 수업을 하고 나가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날 PC방을 나왔고, 데이트까지 하고, PC방도 많으니까 한달정도만 하게 하면 안
 아가 개념서 때 왜 배워야 할지 물어봄
 그들을 묶어서 개념 배틀
 이만큼 놓았으니까 꼭꼭 쓰라줘도 해안하더라는 것 같은 느낌

10년동안 준비했던 경험
 수업중에 다뤄서 쓰니까 가장 사서 기억 배움
 영문 한 나날까, 다음날에는 라 인가는 문장은 수업하면 좋게 해 주고 이야기 해 줌



- 초등학교 방과후 컴
- 퓨터 강사 시작
- 교재선택의 어려움

나만의 교육과정이 체계화 됨

- 의욕이 없고,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버릇없고 막말하는 학생을 만남
- 심리·정서적 고통
- 아이들과 두터운 벽이 생김
- 아이들과 정이 없어 지고 가르치는 일에 회의감
- 학부모로부터 윤리적·도덕적 태도 강요

- 화를 내면 나쁜 선생님이 됨
- 지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학생을 포기하게 됨

- 우리는 직업인가 vs 봉사 희생인가의 갈등
- 아이들에게 정이 떨어지고 직업이라는 생각
- 사랑보다는 직업이다.
- 재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으로 스트레스
-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직의 보람보다는 실적 위주의 자격증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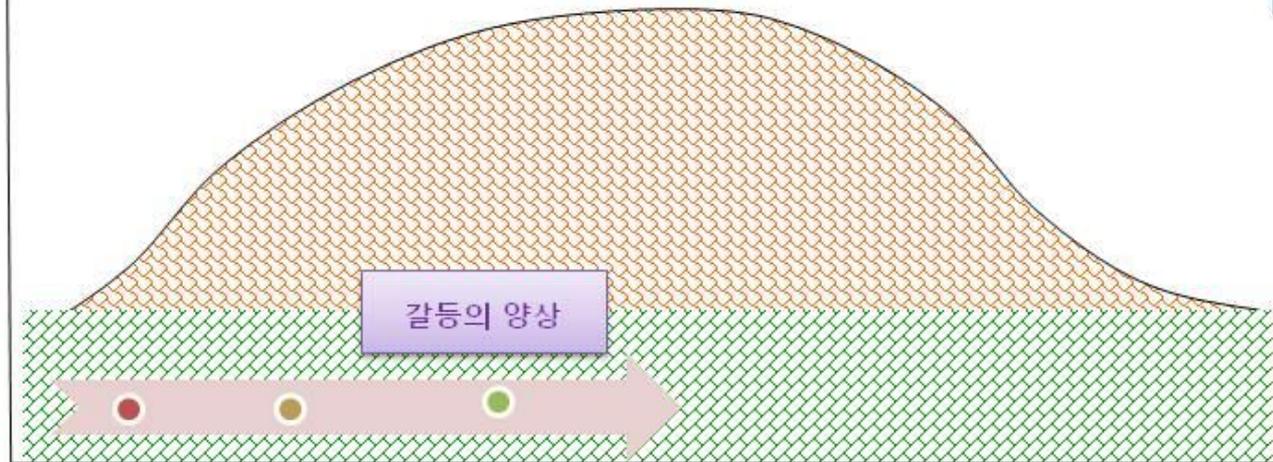
- 자기성찰·자기계발
-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 다른 강사 수업 참관

- 갈등유지
- 더 가르쳐야 하는가 vs 그만 두어야 하는가



- 체계적 교육과정이 없어 수업방법이 익숙하지 않음
- 수업기술 부족
- 아이들과 관계형성 어려움

- 수업이 익숙함
-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시간 때우는 방법으로 취급함(학원중시)



갈등의 양상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1) 교직을 선택하게 된 동기

• 대학 3 ~ 4학년

향기 선생님은 교직 공부를 시작하면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는 교과학습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녀가 '꼭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대학 4학년 때 모교에서 교생 실습을 시작 하면서부터였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한테 느껴 보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다.

• 인간적으로 멋진 직업의 교사

그녀가 생각하는 교직은 교사라는 직업의 직장이기보다는 우리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했었다.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2) 컴퓨터 강사로서 아이들을 처음 가르쳤을 때의 느낌

“너무 좋았네. 처음에는. 너무 진짜 재미있었어요. 7시 30분부터 5시까지 중간에 재량수업까지 해 주는 데도 피곤한 게 없어요. 그때는 너무 즐거웠고. 토요일도 나와서 보충 해주고, 아이들 시험볼 때.” (2차 면담: 45쪽)

향기 선생님은 교직 공부를 했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녀에게 컴퓨터는 아이들과의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고,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과의 만남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웠다.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3) 신입 컴퓨터 강사로서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수업방식)

“수업 초창기에 어떤 교감선생님이 강연을 통해서 수업방식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자고 있다면 어떻게. 아이가 집중을 안 하면 어떻게. 자기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서 교감까지 올라왔다. 그게 진짜 수업이잖아요. 그런 수업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은 연수를 가잖아요.” (1차 면담: 6, 7쪽)

그녀는 좋은 수업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교육 지원청 지원으로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 연찬회가 년1회만 있을 뿐, 체계적인 교육이나 연수는 받아보지 못하였다. 강사들에게는 연찬회 참여로 실질적인 도움과 자기계발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4)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컴퓨터 교육과정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5) 컴퓨터 수업 지도에서의 강사와 학생과의 갈등(저학년)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잖아. 어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1:1 수업에 너무 익숙해져서 여럿이 수업 할 때는 무조건 자기 먼저 봐달라고 소리 지르고.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한다고 생각하거나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빠지는 경우도 심한 것 같고. 한자녀 가정이 많잖아요. 요즘은.” (1차 면담: 31쪽)

향기 선생님은 아이들이 열심히 집중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힘 들었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남을 배려하기 보다는 조금만 어려워도 선생님이 빨리 와서 자기만을 먼저 도와주기를 원하였다. 때로는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울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녀가 당황스럽기까지 하였다.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5) 컴퓨터 수업 지도에서의 강사와 학생과의 갈등(고학년)

"5, 6학년 수업하면서 사춘기 와서 수업하기 싫으면 수업 내용을 줄이는 만큼, 아이가 될 수 있으면 딴 데 안가고 마음을 그냥 컴퓨터실에 붙잡아 두는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진도는 늦게 나갈 거 아니에요.

한번쯤은 아이한테 네가 이만큼 놀았으니까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1차 면담: 35쪽)

고학년이다 보니 스스로 수업에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목표 의식 없이 수업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녀는 이런 아이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진도를 천천히 맞춰 주었고, 때로는 목표량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6) 컴퓨터 수업시간에 문제행동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수업을 하는데,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어. 이 아이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예문을 봤을 때 글자 모양 크기 이런 것만 하고. 우리가 흔히 창작성을 요구하는 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자연습하자 그러면 ‘안 해요!’ 뭐 하자 하면 ‘안 해요!’ 나중에는 말을 해도 안 되고, 혼을 내도 안 되잖아요. 나는 나중에 이 아이를 포기 했어요.” (2차 면담: 46쪽)

아무 의욕도 없고, 그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로 인해 수업 분위기도 엉망이 되었고, 주변에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조차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중대 사건

“나중에 너무 안 만들고, 반복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만들 때까지 못 가게 하고. 2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차비 내놔요!’ ‘뭘 차비?’ 자기 학원을 못 가니까 차비를 내 놓으라는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래. 너 때문에 여기 5, 6학년 형들이 다 수업을 못했으니까 다 계산 해 줄 테니까 너 그거 돈 내 놓고 가라’고. ‘아이, 씨!’, ‘치!’ 이러면서 3학년 남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책상에 올라 가라해서 처음 발바닥을 때린 거예요. 처음 때를 든 거예요.” (2차 면담: 47쪽)

그녀는 아이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타이르기도 하고 경고를 주기도 하였다. 그녀가 아이의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은 감정조절을 못 했던 경우지만, 그녀는 아이의 무례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번 지도해도 전혀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이 학생 때문에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었고, 그녀는 이 아이로 인하여 심리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녀는 좌절하게 되었고 아이들과 거리감을 두게 되었다.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7) 컴퓨터 강사로서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엄마들한테 뭔가 성과물 자격증이 없다 보면 인정을 안 해줘. 아이들의 흥미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증거라는 게 없으면 엄마들은 인정을 안 해줘.” (1차면담: 15쪽)

향기 선생님은 학부모님들이 방과 후 선생님을 믿고 아이를 맡겨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아이가 조금 진도가 늦다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나 자격증 취득이 없을 때 학부모는 조금하게 서두르거나 선생님의 교육과정을 인정 하지 않았다.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8) 컴퓨터 강사로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학교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대해 줘서 멘토 역할을 해 주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만 해요. 우리가 무엇을 여쭙봤을 때 이런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안 계셔. 이 사람들은 너도 가르치면서 ‘그 정도도 몰라?’ 이런 눈빛으로 쳐다 보시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 (1차 면담: 12쪽)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조언해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나 주변에 제도적 장치가 학교 현장에는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힘들었다.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9) ("우리는 직업인가 VS 봉사희생인가?")

"내가 10년 지나니까 기계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아이들에게 사랑도 있겠지만 이건 직업이다. 직업이라는 생각을 7년차에 완전히 100% 느낀 거야. 윤리적으로 고민하는 게 '우리는 직업인가 아니면 봉사희생인가?' 10년 되니까 그 고민이 가장 크대요. 내가 정말 아이들을 더 가르쳐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녀는 가르치는 일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일반 직업처럼 기계적으로만 가르치는 자신의 모습을 느꼈었다. 그녀가 교직의 신념으로 간직했던 봉사직이며 희생을 감수해야 할 직업이어야 한다라는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10) 컴퓨터 강사로서 내적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한번 가보면 좀 더 새로운 것을 겪거나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방과 후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 뒤에서 살짝 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러면 나하고 있을 때와 그쪽 수업할 때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씩 보면 충격이 느껴지더라구.” (1차 면담:

그녀는 하나의 방법으로 교생실습 기간 동안 교수님의 애정과 열의가 담긴 학교 방문을 떠 올렸다. 그래서 그녀는 가르치는 아이의 다른 방과 후 수업을 보면서 그 아이의 반응과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다.

IV. 사례연구 - 자료의 해석

11) 컴퓨터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좋았던 경험

“게임 할 때 멈추자 하면 멈출 줄 알아야 하고. 그만 하자 하면 그만 둘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통제가 되니까. 좋아하면 PC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만 하고 집에 갈까? 그러면 멈추는 거. 그게 되더라고. 아이들도 조절도 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이 되니까.” (1차 면담: 18쪽)

“지금도 아이들이 예쁘고. 아이들한테 쏟은 정성만큼 돌아오는 것. 이 아이가 내게 왔는데 스트레스만 안 받고 가는 게 제일 행복인 것 같아. 방과후는 학교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학교하고 좀 다른 자유스러운 분위기. 학원하고는 또 다른 게 자유스럽고 편한 이미지.” (1차 면담: 18쪽)

- 학교 성적은 부족한 학생이지만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타인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 컴퓨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아이들을 볼 때
- 아이들이 컴퓨터 수업을 즐거워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V. 논의

- 향기샘에 대한 방과후 강사로서의 동기와 초임 경험을 살펴보고
- 학생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통하여 방과후 컴퓨터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본다.
- 방과후 강사로서의 충족감과 힘듦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
- 직업과 봉사 사이에서 갈등하는 연구참여자의 본질적 측면이 학생을 대하는 교사로서의 자신에 모습에 대한 윤리적 고민과 더 나은 강사가 되고자 하는 고양된 측면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컴퓨터 방과후 강사의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양은주, 전영국, 서수경, 클라우스 위츠(2007). 예비교사의 심층 동기. 교과교육학 지식. 내
적 비전의 형성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사례. 교육인류학 연구, 10(1), 89-125.

이동성 (2013). 생애사 연구동향의 방법론적 검토: 세 가지 방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교육
인류학연구, 16(2), 47-82.

전영국, 윤지현 (2011).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컴퓨터교육과 재학생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 컴퓨팅에 관한 심층 동기와 개인 성장 및 비전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 연구, 14(1), 43-76.

Lightfoot, S. L. & Davis, J.(1997). The art and science of portraiture. San Francisco:
Francisco: Josey Bass.

Witz, K.(2006). The participant as ally and essentialist portraiture. Qualitative Inquiry,
Inquiry, 12, 246-268.

Witz, K., Goodwin, D., Hart, R. S., & Thomas, S.(2001). An essentialist methodology
methodology in education-related research using in-depth interview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2), 195-227.